

작품 내용

제 목	꽃을 꺾지 않는 법
내 용	누군가 정성껏 가꾸온 정원에 아무렇게나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처럼 인터넷 세상의 수많은 창작물 앞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신발을 벗어야 한다 함부로 꺾어온 꽃은 내 방에 꽂아두어도 금방 시들고 말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눈에 담은 풍경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법 타인의 노력을 향한 예의는 결국 나를 향한 품격이 된다